

2009년 9월 7일 (월) 권운애회원 계시 _ 새벽 2시 ~3시 10분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전하노라 말씀하셨고 저는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령을 받아라>

나의 마음을 전하노라. 이 시대 축복을 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 성령의 역사의 때에 아직도 믿지 못하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하여 너희 모두를 다 이끌고 가기위해 마지막 기회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였노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어찌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온전히 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믿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작은 능력이라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아직도 받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챙기기 위해 왔노라.

나의 사랑하는 예수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선생 명석이가 기도해서 내가 왔노라.

너희들 그동안 섭리역사를 이루며 주님의 뜻 이루며 왔거늘 어찌 이 성령의 역사에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있느냐. 너희 모두를 한명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구원의 길 천국에 데려오겠다고 선생은 목숨바쳐 말씀 받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다. 선생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을 모르고 잘 깨닫지 못했던 너희를 모두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애원하고 울부짖고 있노라. 마지막 이 성령의 때에는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곧 나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나의 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으며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소서. 다 사랑하는 신부들이예요.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소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예수의 기도가 들리느냐. 들어야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의 음성도 예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이 부족한 고로 바로 옆에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고 나의 심정을 받아라. 섭리역사의 부어주는 마지막 이 성령을 받아라.

이 시간 믿습니다. 믿습니다하는 모든 자에게는 내가 갈 것이니 나의 영을 받아라. 나의 영을 받고 모두 거듭나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성령이

니라. 너희는 모두 성령을 받고 선생과 일체되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너희의 선생은 그 같은 고통에도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너희는 부족한 믿음으로 갚는 것이냐. 그러면 아니 된다. 너희를 모두 사랑해서 내가 함께하기 위해 왔으니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의 영을 받아주길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부르고 찾던 나 이니라. 너가 힘들고 부르고 찾았던 나 여호와라. 너를 내게 맡겨라.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섭리역사의 하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믿고 나의 심정을 받고 실천하여 영이 홀연히 변화되기를 원한다. 다같이 나를 불러보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따라서 기도문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저를 주께 맡기나이다. 이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저를 주께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저희의 영이 홀연히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통해 신앙고백을 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질 때 꼭 믿음 되찾아야 한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나의 영을 이 시간 여기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니 믿는 자의 영에게 부어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잡아라. 바로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노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마지막 기회를 모두 잡자. 모두 변화되어 사랑의 역사, 이 섭리역사 모두는 나를 맞고 예수를 맞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안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섭리의 많은 계시를 받는 계시자들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계시자에게 말한다. 계명이니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

첫째, 모든 계시의 말과 내용은 선생을 통해 분별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하면 사탄이 너희의 그 빈틈을 이용하니 철저하게 행하여라.

둘째, 모든 계시의 내용은 하늘의 말과 비밀이다. 그러니 분별되어진 모든 계시는 서로 믿어주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셋째, 영의 능력자는 섭리사 모두에게 축복해 주었으니 영의 능력을 더 키워 하늘의 뜻을 100% 다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고 근신하며 늘 깨어있어 섭리사 전체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잘 받아 전해주어야 한다.

넷째, 서로 하나되어 서로의 받은 계시를 존귀 여겨주고 선생을 통해 계시하는 말을 완전히 믿고 깨달아 행해야 한다.

다섯째, 계시자는 하늘의 말을 받고 전하는 큰 사명을 받았으니 늘 감사하고 행실과 계시의 말이 일치되게 하여 큰 은혜를 주는 것도 그것 또한 큰 사명이요, 책임이다.

여섯째, 심정을 받았으니 심정이 잠들어있는 섭리사 밖의 사람들을 깨우되 계시의 말을 잘 분별하여 말씀과 계시의 내용을 잘 인용해서 그 사람에 맞게 깨워줘야 이단 시되지 않게 그 사람의 심정을 녹일 수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나의 영을 받았으니 선생의 십자가를 덜어주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늘 근신하고 나의 존재함과 주 예수의 재림, 선생의 사명을 확실하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줄은 말씀을 주시려고 이시간에도 기도하고 말씀 받아 주시는 선생님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생님의 기도대로 저희가 더 열심히 선생님의 기도를 더 많이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시는 말씀>

때가되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명석아, 내가 너를 사랑함같이 나를 사랑해주니 부족함이 없구나. 너를 택함으로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이와 같이 역사를 이끌고 올 수 있었노라. 나와 같이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써 해보자. 정녕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나의 육의 되어 이 역사 온 세상에 전해보자. 1평 남짓 되지 않은 곳에 있지만 마음은 늘 천국이지 않느냐.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모습 보면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러나 우리 늘 함께하니 너의 기도대로 어딜 가도 천국이다.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 어딜 가도 천국이다. 맞다. 너의 기도가 맞다. 내가 꼭 때가되면 너를 온 세상 만국에 너를 높이리라. 천국 문에 들어올 때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노라. 사랑하는 자여, 조금 더 마지막까지 힘써보자. 사랑의 능력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 모든 섭리역사 내가 늘 함께한다. 안녕. 사랑한다.